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3.27.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·과장 이윤상, 서기관 박용선, 주무관 유문식 ·☎ (044) 201-3213, 321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"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, 본부부터 증원 경쟁" 보도 관련

- '18.3.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별 직제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 140명(본부 37명, 소속기관 103명)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입니다.
- 우선, 본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기존에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 본부를 축소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하면서,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되는 차원으로,
  - 이에 따라, 증원되는 인력 28명 중에는 기존 별도조직에서 실제 주거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그 밖에 본부 증원 인력 9명\*도 정보 보안 강화, 법정 의무 사항 이행, 혁신성장 인력 확대 등을 위한 차원으로, 행정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수반되는 필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.
  - \* 정보보안 관제 강화, 공간빅데이터 활용 확대,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인력 총원 등
- 아울러, 소속기관의 경우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(55명), 철도 치안 서비스(38명), 제주공항 관제인력(4명) 등 총 103명이 증원될 예정으로,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현장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는 차원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3.27.) >

◆ 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...‘본부’부터 증원 경쟁

- 정부가 국가 공무원 4,6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의결
-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했다는 설명이지만 각 부처가 본부 증원을 끼워넣음
- 행안부(55명) 기재부(34명), 공정거래위원회(65명) 등이 증원했고,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해 주거복지관을 신설하고 인력을 35명 늘림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혁신행정담당관 박용선 서기관(☎ 044-201-3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